

---

#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 모의 논술

---

### -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중략]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중략]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나)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향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중략]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 한 것이 없다. 그러니 퐁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십 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십이 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꿈쩍도 하지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다)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 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라)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운전자:**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자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자:**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중략]

**운전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 이잖아?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전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자:**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운전자:**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중략]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

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아,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마) **노라:** 툭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군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를 않는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 옳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자에게는 돌아가시게 된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니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헬멜:** 당신은 어린애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소.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요.

**노라:**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이제부터 배우겠어요. 이 사회가 옳은지 제가 옳은 생각을 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요. [중략]

**노라:** 저는 지난 8년 동안 끈기 있게 기다렸어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재난이 닥치자, 저는 이제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크로그스타의 편지가 그곳에 내던져졌을 때— 당신이 그 사나이의 요구대로 움직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나이를 보고 외칠 줄 알았어요. '가서 세상에다 공표를 하게!' 그리고 일이 벌어지게 되면—.

**헬멜:**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요? 내가 자기 아내를 수치와 추문 속에 떨어지게 한 뒤에 말이요?

**노라:** 저는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책임을 한 몸에 지게, 되리라—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소, 하고 말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중략]

**헬멜:** 오, 당신은 철부지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구려.

**노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제 자신이 일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나이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 자신을 위협하게 되었는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될까 봐 벌벌 떨었으면서도 위험이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해지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저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작은 종달새고 당신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소중하게 취급하게 되리라는 것뿐. (일어선다.) 툭발— 그때 저는 깨달은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낯선 사나리와 생활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자식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 아, 참을 수 없어요. 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군요—.

**헬멜:** (슬픈 어조로) 그렇소. 나도 알았소— 알아들었다고.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틈이 있소— 아, 그러나 노라, 그 틈은 메워질 수 없는 것일까?

**노라:** 지금과 같아서 저는 당신의 아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헬멜:** 나도 딴사람이 되어 보이겠소.

**노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의 손에서 인형이 치워진다면요.

**헬멜:** 노라, 당신을 잃게 되다니— 아니, 아니요, 나로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노라:** (무대 오른쪽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더욱 헤어져야만 해요.

**헬멜:** 그러나 당신은 내 아내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든 간에—.

**노라:** 제가 듣자 하니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떠나면 법에 의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당신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해요. 자아, 여기 당신이 준 반지를 돌려드리겠어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헬멜:** 그것까지도?

**노라:** 그것까지도.

(바)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늘 불안을 느끼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 사르트르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실존주의는 이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나 목적이 아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성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영국의 경험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실용주의를 전개하였다.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듀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를 일컫는다. 듀이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아) 우리나라는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몫을 우선 보장하려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자녀의 특례 입학, 지역 균형 선발, 여성 할당, 장애인의 의무 고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도입하기도 한다. 반면,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이 또 다른 역차별과 부정의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역차별이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나 방침으로 인해,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도리어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심 재개발은 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된 지역에 상업·업무 기능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건물이 고층화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로 및 교통 체계가 개선되면 공공시설의 배치와 기능성이 좋아진다. 그 결과 낙후된 도시의 기능이 회복되어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기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되거나 일부 주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보상비와 이주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철거 재개발 후 원거주민들의 삶터와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아진 거주 환경에 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동양 윤리 사상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호 의존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한다는 인식이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대대(對待)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대대란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이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뜻한다. 낮과 밤은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고, 둘이 합쳐져야만 하루가 된다. 유교와 도가는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아 만물의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음양은 반대이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짝이다. 짝을 이루면서 둘은 하나의 복합적 개념이 되고, 하나씩 나누어 보아도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된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고, 다른 하나가 없다면 이 하나 역시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짝이 있다는 생각을 심화하여 심오한 철학을 만들어 낸 것이 『주역』이다.

[문제 1]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자양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특징의 원인을 제시문 (자)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